



時 計 塔

SIGETOP



2007년 7월 15일 발행

서울대학교醫科大學美洲同窓會 發行

제34권 3호

172-10 45th Avenue, Flushing, NY 11358
snucmaa@yahoo.com / www.snucmaa.org
Tel: (718) 888-2622 Fax: (718) 888-2608

발행인: 崔英子
편집인: 金炳哲

편집위원: 徐亮
徐仁錫

자문위원: 盧鎔冕 李熙景
許善行 宋寬鎬

취임사

봉사하는 훌륭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며

최영자 (66)



자랑스러운 미주서울의대 선후배 동문 여러분께 문안드립니다. 부족한 저로서 1200명 동문들의 동창회 회장으로 책임을 맡겨주신 동문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집행부 임원진 구성을 하다보니 회장직에 대하여 새로운 책임감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역대 회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Robert Greenleaf 가 저서한 "The Servant-Leadership" 에 쓰여있는 개념을 따라 '섬기는 리더'로서 동창회 공동체를 이끌어 가도록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훌륭하신 선후배 여러 동문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마지않습니다. 일년 동안 동문 여러분들과 성취하고자 하는 지향적인 다음 세가지 의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봉사활동추진: 동창회의 By-Laws, 제3조, Purpose 조항에는 "To promote charitable activities; and to participate in any other activities approved by the Board of Directors"라는 구절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목적은 앞으로 저희 동문 모두가 성취해야되는 과제로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새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친목이외에도 사회와 인류복지향상을 위하여 봉사기여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지도적인 동창회가 되도록 다같이 고무격려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전번 이사회에서 이 사회봉사활동을 위한 Ad Hoc Committee 구성을 허락받았으며 전체동창들의 참여를 시도하기 위하여 New York, Chicago, Michigan 과 LA 지역의 동문들을 임원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생각하던 이외에도 많은 동문들께서도 합심하시기로 동의하셨습니다. 저희 동문들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의 이미지를 살려 정치나 종교를 떠나서 순수한 인간애를 발휘하여 인류복지향상과 보람있는 사회사업에 참석하시면 이 동창회가 사회의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모범이 될 수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첫째로 구상하는것은 비용이 많이 안드는 봉사활동으로서 질병예방의학에한 건강강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다음 단계로서는 성금이 허락하는대로 구제보호나 무의촌 방문 등 더 큰 봉사활동을 확장하려고 하오니 많은 동문들의 조언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동문 여러분들께서 깊은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도움을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동창회가 지닌 잠재적 역량을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될것을 확신합니다.

동창회는 동문들을 위한 공동단체: SNUCMAA, 동창회는 여러 모든 동문들로 구성되어있고 여러 모든 동문들을 위한 공동단체입니다. 동문들께서 모교에대한 애착심과 공동의식을 재확인시켜 더욱더 많은 동창이 동창회 모임이나 행사에 적극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모교발전에 힘이되고 새로 배출되는 동문들에게도 모범이 되리라고 봅니다. 젊은 여러 동문들의 참여를 장려하여 동창회의 원동력을 젊은세대로 교체하는것이 동창회의 장래를 위하여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2007-2008 년도에는 젊은후배와 그동안 동창회에 안나오시던 분들을 임원으로 선출하였습니다. 각 동기 대표나 또는 지구대표 여러분께서도 동창회 본부와 밀접한 연락을 하여 서로의 소식을 교환하고 동창회 행사에 많은 동문들이 적극 참석하도록 협조와 성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또 본국동창회와도 긴밀한 연락과 협조를 유지하여 서로의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2008 학술회에는 한국과 미국 동문들의 joint symposium 의 학술회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미국에 오기를 희망하는 후배동문들을 위하여도 여러모로 기회를 만들어 장학금수여 등 혜택을 많이 줄수있도록 계속 노력하고자 합니다. 은퇴하신 동문들께서도 동창회에 빠짐없이 적극 참여하셔서 후배들 양성에 조언과 편달을 주시면 동창회 발전에 큰도움이 될것입니다. 또한 동문자녀들이 학술발표 등 모임에 적극 참여하여서 훌륭한 저희 동창회를 자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장려하십시오.

Communication: 시계탑을 통해서 더 많은 동문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동문 여러분의 활동상황, 동정과 각지부 동기분들의 활동상황을 서로 교류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문이나 자제분들의 미답이나 어려웠던 이야기도 서로 나눌수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Website의 유지비용과 사용문제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한국동창회의 website 에 가입하여 비용부담도 해결되고 한국동창과도 더 활발한 교류를 할 수 있는기회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Website 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여러 동문들의 협조와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올아오는 총동창회는 Las Vegas 에서 2008년 3월 16일 부터 20일 까지 개최되오니 동기회와 지역회에 구매되지 말고 다같이 모임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 각학년들의 졸업주년 기념대회도 돌아오는 이 총동창회에 같이시행하실수 있도록 계획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문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임사

계속 밝은 미래가 전개되기를 바라며

조동준 (64)



어느덧 회장 직책을 떠날때가 되었습니다. 보람을 느끼며 바쁘게 보낸 일년이었습니다. 도리켜 보면, 방대한 북미주의 전국적인 동창회기구를 파악하고 또 관장하기에는 짧은시간이고 힘든일 이었습니다만 일년동안 큰 과오없이 보낸것을 개인적으로는 다행하게 생각하며 함께 일한 임원동창여러분, 그리고 동창회를 위해서 다방면에서 후원해주신 선후배 동창여러분에게 감사한 마음 전하고 싶습니다. 특히 40년대, 50년대 졸업하신 대선배님들 이제는 동창회 활동에 별 참여가 없으면서도 계속 동창회비를 보내주시고 계속 성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동안 동창회 발전에 관대한 기부금을 보내주신 동문들에게 동창회 이름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창회원들의 열정과 재정적인 후원없이 존재할 수 없는 미주동창회입니다. 훌륭한 동창회의 활동과 프로그램이 우리들의 이민생활에 크게 긍정적으로 이바지함을 통감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L.A에 살고, 그리고 동창회 사무실은 뉴욕에 있어, 지역적으로 다른 시차 때문에, 동부, 서부 및 남부 그리고 한국으로의 전화연락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구촌에 살고있음을 실감하며 동창회의 활성화와 내실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Computer 도움없이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음도 절감했습니다. 그동안 동창회를 많이 연구해 왔기에 떠나면서 몇가지 생각을 아래에 첨부할까 합니다.

첫째로 30년이 지난 미주동창회에 아직도 기금이 없어 운영이 잘못되는 해에는 적자를 보는것이나 재정적으로 안정성이 결실되어 있습니다. 금년 회비 납부자가 550명이며 미납자가 550명이나 되는데 3개월마다 나가는 시계탑 신문은 매번 1150부 발송되고 있으니 무임승차자로 인한 재정적인 부담이 큼니다. 재정적으로 튼튼한 동창회라면 발전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동창회비를 납부하시는 동문들이 100%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앞으로 회장임기는 2년으로 바꾸었으면 합니다. 새로운 회장 구하기도 힘든 일이지만 취임후 어렵게 배운지식(knowhow)을 일년후에 버리는것은 큰 낭비로 사료되며 항상 경험이 부족한 새회장만 일하게 되어서 지식의 축적이 없습니다. 업무의 연속성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

세번째로 점점 힘들어가는 동창회를 가능한 간소화하고 축소시켜서 꼭 필요한 동창회 활동만 집중유지해 나가는 것이 재정적으로도 도움이 된다 생각합니다.

네번째로 annual convention 속의 학술대회인데 은퇴한 동창이 전체의 반수가 가까이 되고 또 거기에 배우자가 반수나 되니 다수에게 시간적으로, 금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인지, 모두에게 관심사가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할 것 같습니다.

다섯번째로 시계탑의 편집체신입니다. 동창회 활성화에는 3개월마다 배포되는 시계탑 신문의 역할 이상으로 중요한것이 없다 생각합니다. 흥미롭고 유익한 신문이라면 외면하는동창이 없으리라 사료됩니다. 현 편집위원 여러분이 장기적으로 수고를해주시고 계시지만, 새로운 바람을 가져올 젊은 편집위원으로 일부 혹은 부분적으로 교체해서 update 시켰으면 합니다. 뉴욕주 밖에 있는 편집위원도 추가되었으면 합니다.

여섯째로 미주합춘시계탑상으로, 매년 이곳 동창회에 공헌한바가 많은 동창을 표창하는 제도를 제정했으면 합니다. 지난번 convention에서 정구영 동문께서 받았던 감사패같은 것인데 부상이 따르면 더 좋겠습니다.

저희 동창회 장학기금인 46만불은 잘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동문의 아들되고 사위되는 오군이 지난 4년전 부터 매년 1만불씩 기탁하시는 장학금은 가장 통쾌한 일종의 하나로 기억됩니다.

뒤돌아보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하는 annual convention 준비가 가장 힘든일 이었으며, 이제 시계탑에 영어원고를 수용하는 문을 열게된 것은 정말 다행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본국 합춘대상에 미주 동창이 수상하지 못한 일은 유감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동창회 사무실에 들어온 모든 동창들의 경조사 소식에는 동창회 이름으로 섭섭함이 없도록 배려에 노력했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는 동창회에 걱정하는 동창도 많이 계신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생이 도전의 연속이란 말을 상기한다면 우리는 이곳 이민 시작부터 내내 도전의 연속이었으며, 동창회를 계속 update와 upgrade 시키면서 합심해서 꾸려나간다면, 우리 동창회의 장래는 여전히 밝다고 믿습니다.

미주시계탑, 동창, 배우자, 미망인 그리고 2세들 앞날에 계속 밝은 미래가 전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동문동정

백보흠(52) - 5월 26일 교통사고로 골절상을 당해 입원하였으나 3주후 퇴원하여 자택에서 요양중. 조동준 전회장이 꽃 바구니를 가지고 병문안 함.

김시한(58) - 김동문의 장남 Edward Kim이 미네소타 주 미네아폴리스 근교에 있는 Breck School의 head master로 부임했다. Break School은 pre-K부터 12학년까지 1,200명의 학생들을 교육하는 명문 사립학교이다.

임낙중(59) - 지난 2006년 입낙중 글모음집 발간에 이어 금년에 두번째 글모음집 354쪽의 '행복'을 발간했다.

김병석(59) - 동문이 원장으로 있는 한미문화연구원에서는 Im Art Center의 후원으로 자녀들에게 우리의 정서와 예술 문화를 가르치는 문화예술캠프를 여름방학기간동안 개최한다. 이는 우리 자녀들이 미국속의 한국인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미주류사회에서 당당히 살아가기 위한 교육의 일환이다. 캠프장소는 Im Art Center와 Rutgers University이며 교육은 비나리/사물놀이, 민요/판소리, 한국무용, 서예, 스포츠 댄스, 정신건강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유능한 강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등록 문의 및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전화 732-246-7066 혹은 웹사이트 www.imartcenter.com로 방문하시면 된다.



정정수(62) - 7월 3일 뉴욕에서 장모님 상을 당함.

최준희(64) - 지난달 심장 by pass를 하고 자택에서 요양중이다. 동창회에서 빠른회복을 기원하며 꽃 바구니 보냄.

김홍서(69) - 6월 23일 뉴욕에서 장인상을 당하여 동창회에서 조화를 보냄.

문대옥(73) - 6월 2일 서울에서 모친상을 당함.

이만택(58)동문 자랑스러운 재미동문상 수상

지난 5월 19일 뉴저지 포트리에 있는 힐튼호텔에서 열린 제16차 재미서울대학교 동창회 평의원 회의에서 이만택 동문이 서울대학교 총장이 시상하는 자랑스러운 재미동문상을 수상받았다.

사진: 그 모임에 참석한 동문들 - (오른쪽 부터) 이병희(66), 추재욱(63), 선종철(63), 김용재(66), 노용면(55), 이만택(58), 민병덕(59), 반택용(63), 이능석(63)



김승업(60)동문 제8회 함춘대상 학술연구부문 수상



브리티쉬 컬럼비아 의대 명예교수이고 가천의대 석좌교수인 김승업 동문(60)이 지난 3월29일 서울 엠베서더 호텔에서 열린 서울의대 동창회 연례총회에서 제8회 함춘대상(含春大賞) 학술연구부문을 수여 받았다. 함춘대상은 "생애를 통하여 학술연구부문에서 인류복지 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하고 서울의대와 동창회의 명예를 드높인 회원을 현창한다"는 취지로 제정되었다. 아래는 수상의 주요공적지이다. 주요공적은 다음과 같다.

1. 김승업 박사는 1965년 경도(京都)대학 대학원에서 의학박사를 받은 뒤 도미하여 컬럼비아대학 의대-캐나다 사스카치완 의대-펜실바니아대학 의대-브리티쉬 컬럼비아대 의대에서 신경학 교수로서 30 여년간 교육과 신경과학 연구에 종사하였으며 신경발생, 신경재생과 신경계질환 모델에 대한 연구업적으로 Nature, Science를 포함하는 국제 저명 학술지에 376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지난 10년간에는 뇌졸중, 파킨슨병, 한팅톤병, 루게릭병, 척수손상, 뇌종양 등 뇌질환의 동물모델에서 인간 신경줄기세포를 이식하여 양호한 치료효과를 가졌다는 성과로 124편의 논문을 발표 하였다.

2. 김박사는 북미에서의 30여년 동안 62명의 우수한 후진을 양성하였는데 그 가운데 24명이 한국인 연구자이다. 1998년에 귀국하여 아주의대 석좌교수로서 신경과학 분야에서 한국 최초의 과학기술부 지정 우수연구센터인 뇌질환연구

소를 설립 2007년2월까지 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고 이 연구소가 지난 9년 동안 한국 신경과학 연구의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이를 키웠다. 김박사는 뇌연구소와 연계하여 아주의대에 한국 최초의 신경과학 대학원 과정을 설립하고 지난 9년 사이에 120명의 석사, 박사를 배출 하였다.

3. 김박사의 학문업적을 인정하여 브리티쉬 컬럼비아대학은 1995년 마리안느 코너 석좌교수 (Marianne Koerner Professor for Brain Disease)의 영예를 수여하였고 2002년 에는 한국 과학기술한림원이 새롭게 제정한 한국 과학기술한림원 제1회 의학상을 김박사에게 수여 하였다. 김박사는 2004-2005년 한국 뇌신경과학회 회장으로 후학의 양성 및 국내 신경과학 발전에 기여하였고 2005년에는 한국 조직공학-재생의학회 회장으로 선임되어서 새로운 학문분야인 재생의학이 한국에서 뿌리를 내리도록 노력하고 있다. 2005년에 김박사가 중심이 되어 한국 줄기세포 학회를 창립하고 초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황우석 사태로 아이텐티티 위기에 선 한국 줄기세포 연구에 새로운 활기를 넣도록 노력하고 있다.

장학위원회보고, 2007년도 수혜자는 총 3명

2007년도 미주동창회 장학금 수혜자는 다음과 같다.

Nicholas Cho Ahn(안경식 '65 동문 자제), Sunny Chun(전원일 '83 동문자제), Youngtae Jeong, MD 등이다.

57년 동문 졸업 50주년 기념행사 계획 보고

서울의대를 졸업한지도 벌써 5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이 뜻있는 해를 기념해서 11회 동기생 그리고 가족들이 내년 2008년 10월에 서울에서 만나서 10월 10일(수)부터 14일(일)까지 5일간 동창회관과 모교를 방문하고 그후 여러 명지를 함께 방문할 예정이다.

버스를 대절해서 함께 흘러간 노래도 부르고 학창시절을 되돌아 보면서 옛 추억을 더듬어 보며 즐길 생각이다. 5일간 여행을 마치고 원하는 사람들은 3일간(10월 16-18일) 제주도도 모여서 더 즐길 계획이다. 나아가서는 몇사람은 일본도 들리고 또 중국도 들릴 생각이다.

미국, 또 캐나다에 거주하는 우리 동기생이 29명인데 몇명은 별세했고 26-7명이 남았는데 거의 전원이 50주년 모임에 참석할 예정이다. 즐거운 모임을 앞두고 벌써 모두 설레이는 마음이다. 학창시절에 처음 발표된 노래 '신라의 달밤'을 본정통 레코드 가게 앞에서 열심히 따라 부르던 기억이 아직도 새롭다.

- 정구영 (57, 동기대표)

뉴욕지부 보고, 가을골프대회 9월 22일 연말파티 11월10일



2007년도 미주동창회 제2 부회장과 뉴욕지부 회장 임무를 맡은 광승용(71)입니다. 과거 동창회 경험도 없이 부족한 제가 소임을 감당할지 두려운 마음이나 임무에 최선을 다할 각오를 해 봅니다. 미주동창회 제2 부회장은 회장님을 도와서 계획된 사업이 성공하고 그의 비전이 실현되도록 돕는 일이라 보고 노력할 것입니다.

뉴욕지부는 그동안 해오던 두가지 연례행사를 예년과 같이 성공적으로 치루는 일 이겠습니다. 즉 가을, 봄에 2차례 골프행사와 연말파티입니다. 이번 가을골프대회는 9월 22일(토) Bergen Hill(옛 Rivervale)에서 초가을 정취를 푸른 초원에서 공을 날리며 동문들과 옛정을 나누는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연말파티는 11월 10일(토) 뉴저지 대원에서 열릴것 입니다. 의례 연말이면 여기저기 파티에 참석해서 춤추고 경품타는 파티보다는 좀더 의미있는 연말파티가 되도록 준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두 행사 모두 행사를 위한 행사라기 보다는 하나의 테마를 위한 기금마련을 해보고 싶은 욕심입니다. 미주동창회 회회장님은 우리 동창회가 사회적 약자, 소외된 자, 북한동포를 돕는데 눈을 돌리지 못했는데 이번에 미약하나마 시작을 해보자는 숭고한 뜻을 따르는데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동문 제위께서는 서울의대를 나와 의사로서 남다른 능력과 재능으로 존경받고 경제적으로 넉넉한 혜택을 누려왔으니 이제는 우리도 남의 아픔과 문제를 나누는 삶을 가져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문 선후배 여러분! 상기 두 행사에 적극 참여하시어 즐기시고 격려해 주시고, 나누는 삶을 위한 기금모금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Cell 917-756-2437

ANNOUNCEMENT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Medicine Alumni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is seeking applications for the 1999 SNUCMAA Research Grant from its members.

The applicant must be in good standing of SNUCMAA of North America.

The past participants of the Grant are also eligible.

The proposed research project can be in the area of either clinical or basic science.

The proposal should focus on a topic of importance and of benefit to bo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preferably involve collaboration between SNUCMAA of North America and Korea

The project must have scientific merit, and the proposal must include objectives, methodology, the site of the study, the name of the principal investigator and collaborators if applicable, and the detailed information of the budget.

The recipient must present the results of the study at the following annual scientific convention.

The amount of the Grant is ; \$3,000 from the SNUCMAA of North America Won 10,000,000 from SNUCMAA of Korea

The dead line for the application is August 15, 2006

Please send the original and four copies of the proposal and CVs of investigator(s) to

Chair, Research and Fellowship Committee, SNUCMAA of North America
Hie-Won L. Hann, MD
Jefferson Medical College
1025 Walnut Street, Room 910, Philadelphia, PA 19107

조동준 회장의 연락을 받고 강수상 선배님을 찾아 의사로서 그리고 학자로서 그의 인생을 들여볼 기회를 가졌다. 작년 10월을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떠나 지금은 부인 김정희 씨와 한가하지만 않은 은퇴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그와 환담을 하며 그의 출생 성장 도미 유학에서 현재까지 겪어온 그의 삶과 그의 철학을 들어 보았다.

- 언제 어떤 계기로 미국에 오게 되셨는지요?

처음 미국에 발을 들여놓은 것은 50년대 말 미네소타 대학에 모교에서 파송되어 왔습니다. 공부를 끝내고 모교로 돌아가 방사성 동위원소실 (핵의학 전신) 설립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때 강의실에서 만난 후배들이 64, 65 졸업생이고 지금까지 각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60년대 초의 열악한 상황에서 한국에서 학문을 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을 따는 것보다 어려웠습니다. 그때 전임강사 가운데서 다시 공부하러 갈 결심을 하고 휴직원을 내고 미국으로 온 사람은 동기생 김재남 형과 나 입니다. 나는 IAEA 장학생으로 64년에 시카고 대학으로 왔고 이듬해 김재남 형이 루이빌 대학으로 갔습니다.

- 어떤 연유로 유전학을 하게 되었습니까?

원래 생화학과 유전학을 결합하는 학문을 하고 싶었는데 시카고 대학 LaRabida 연구소에서 분자유전학을 공부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임상에 오기 전까지는 세균과 세균 바이러스로 기본적인 생명현상을 연구했습니다. 73년에 귀국할 것을 단념하면서 임상 수련을 받고는 의학유전학을 하게 되었는데 분자유전학을 공부한 경력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분야는 아직도 초창기였습니다. 83년에 임상유전학 전문의제도가 처음 생기며 American Board of Medical Genetics의 창립회원이 되었습니다.

- 유전학자로서 연구업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제일 널리 알려진 연구가 호모시스테인의 연구이고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상에 올 때까지는 조절유전자의 단백질합성에 관계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의 주요 업적은 Repressor가 단백질이라는 것을 입증한 연구와 Streptomycin의 내성이 단백질합성 기구에 있는 한 유전자의 변이로 일어난다는 것을 밝힌 연구입니다. 벌써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문헌을 읽고 나 스스로 고안한 일 일이 잘 풀려서 본래의 약정한 2년의 체류가 연장되었습니다. 호모시스테인에 관한 연구는 하나로 묶어본 20년이라는 글로 시계탑에 이미 발표한바 있습니다. 정상인의 호모시스테인 정량을 하는 방법을 찾아내면서 뒤따라 관상동맥 증과의 관계를 밝혔고, 성인 호모시스테인증의 변이유전자의 발견, 엽산과의 관계 같은 오늘날까지 핵심이 되고있는 일들이 80년대에 우리 연구실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90년대에 들어오면서 많은 학자들이 이 분야에 들어오면서 한동안 꽤 바쁘게 미국내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 초대되어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호모시스테인의 전성기를 맞으면서 한편 나는 다른 문제에 흥미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일은 군의관으로 있던 그 옛날부터 생각하고 있던 일로 이제는 출판도 진급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단계가 되면서 손을 대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90년대 후반부터 지질(지방질) 특히 배아 인지질의 연구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직도 이 문제에는 애착을 가지고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 호모시스테인 학계와는 지금도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2000년에 들어와서도 몇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분야의 선구적 역할은 이제는 끝난



강수상(53) 동문 탐방기

셈입니다. 인지질에 집착할 수 있는 전기가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다행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모시스테인에 대한 연구동향에 지금도 관심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Up-To-Date라는 Website CME Program에 있는 호모시스테인 Review에 관계하고 있습니다.

- 호모시스테인과 콜레스테롤이 심혈관질환이나 Stroke의 원인으로 얼마만한 역할이 있는지? 요즘 호모시스테인에 대한 열기가 조금 식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서 긴 이야기를 하기는 어려운 과제입니다. 콜레스테롤이나 호모시스테인이 병의 원인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Risk factor 라는 말은 통계분석에서 병에 걸릴 확률이 증가되는 요인이라는 것이지 병인 그 자체는 아닙니다. 혈청 콜레스테롤이 200이상이면 약물을 써서 200이하로 떨어지게 하고 있는데 Risk를 줄이는 문제를 병인을 제거하는 문제와 동일시하는 것은 생각해 볼 일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약이 콜레스테롤의 함량을 줄인다는 이유에서보다는 스타틴 유도체가 가진 항염작용의 역할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호모시스테인의 최근 평가는 너무 궤도를 이탈하는 인상을 줍니다. 수천명의 환자를 동원한 VISP, NORVIT, HPOE-II 같은 대규모 연구에서 심혈관질환이나 뇌혈관질환의 이차예방에 Folic acid-B12가 무효하다는 결과를 JAMA와 NEJM에 발표하여 바람을 일으켰는데 이들 보고가 문제의 해답을 제대로 찾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실패작 같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당뇨병이나 고혈압증이 심혈관 질환의 위험요소라는 것을 혈당이나 혈압의 값과 직접 비교해서 분석하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이번 겨울에 있을 라스베가스 학회에서 이 문제를 얘기할 기회를 가질 생각입니다.

- 시계탑과 총동창회보에 가끔 철학적인 글을 쓰는데 한 말씀 하셨으면 합니다.

수상이나 수필 같은 글을 시계탑에 쓰게된 데에는 동창회의 일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1980년 시카고 동창들이 처음으로 3박 4일의 여름 캠프를 할 때 강연을 해달라는 차웅만(64) 회장의 위촉을 받고 '나무를 심는 마음'을 쓴 것이 시작입니다. 그 이듬해 캠프 때의 생각하는 종교인으로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책이 한 권 될 정도로 꽤 많은 글들이 모아졌습니다. 시카고 대학에서 유전학 공부를 했습니다만 한편 인문분야에 있는 훌륭한 여러 분들과 사귀면서 철학 종교 심리 역

사 같은 분야에 공부를 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 때가 내 인생에서 이제까지 생소하던 인문분야의 세계도 경험하게 되는 소중한 시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러시면 강 선배님의 인생관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누구나 나름대로의 자기 인생관이 나 종교적 사고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를 생각하는데 인문 예술 분야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자연과학

김 선 철 (64, 시카고)

특히 현대물리학과 의학의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가 공부한 생화학이나 유전학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인생의 실상 그리고 궁극적 질문이라는 글을 써보았습니다. 기회가 오면 발표를 할 생각입니다. 내 생각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이렇습니다. 생로병사에 얽힌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영생을 생각하던지 생각하고 싶어하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본성입니다. 그런데 이승과 저승이 좌표의 차이 같은 전위(Translocation)의 과정으로는 삶과 죽음의 연결이 설명될 것 같지 않습니다. 꼭 비유를 하여야 한다면 유충에서 나비가 되는 것 같은 변이(Metamorphosis, Transformation)의 과정에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수궁한다면 인간에는 물론 우주에 존재하는 삼라만상과 나 사이에 형성되는 융합의 관계를 이해하는데서 만족할만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 53년 졸업의 선배로 보기에겐 젊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무슨 비결이라도 있습니까?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지요?

몇 달 있으면 76세가 됩니다. 학교를 조금 일찍 나온 덕을 본 점도 있습니다. 다른 하나의 요인이 있다면 내가 연구하는 인지질과도 관계가 있다고 할까요. YF 라는 성분이 공헌을 한 것 같기도 합니다만 양적 측정이 어려운 노화문제를 한 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평균 연령이 30년도 안되던 옛날에도 드물게는 70년을 더 사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은 노화도 체질이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된 셈입니다. 그렇다면 체질과 환경을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노화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 장학사업을 시작한지가 꽤 오래되지요?

명년이면 10년이 됩니다.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을 10명 내외로 골라서 \$1,000-10,000을 줍니다. 총액 3만 불을 창의성이 보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선현들이 이룩한 업적덕분에 이런 환경이 마련되었다는 생각을 하면 우리도 오는 세대를 위하여 봉사해야 할 의무감을 절감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며 훌륭한 분들의 배려로 학업을 끝냈고 교직에 있을 때도 프로젝트에 필요한 그랜트를 따내는 데 노심초사하면서 나와 같은 길을 걸어오는 젊은이들을 도와주는 방법

을 늘 염두에 두었습니다. 현재까지 20만불 이상의 장학금이 지급되었으며 한편 25만불 이상의 기금이 축적되었으니 앞으로 좀더 심도있는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동창회와의 인연을 말해주었으면 합니다. 먼저 시카고부터.

64년 시카고로 와서 여태껏 여기서 살고 있으니 시카고 동문들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66년에 동창회가 창립된 이야기는 시계탑 문집 1권에 '미시간 호의 봄'이라는 글로 정리한 일이 있습니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80년에 시작한 하기캠프가 매년 계속되면서 김현규 선배님이 회장을 한 88년에 드디어 전국적인 학술대회로 발전하였습니다. 그 해의 학회 주제가 Aging 이었습니다. 벌써 24년이 됩니다.

- 서울의대 미주동창회 회장을 90년에 하셨지요?

그 무렵이 우리 동창회의 전성기가 아닌가하는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동문이 전문의로서 자리가 잡히고 자녀들이 장성하고 안정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모교의 학장이던 김상인 동문에게 China Medical Board Fund가 모체가 되어 마련한 기금 150만 불을 드디어 모교에 전달하게 되었고 미주동창회는 매년 한사람을 뽑아 연구비를 지급 받는 일이 지속되었습니다. 그 뒤에 서울 동창회에서 학술상으로 변경되었다가 지금은 단절되어 버렸다는데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 해 이광선(65) 동문이 수고해서 만든 실문서는 400명 이상의 동문이 응답을 해 주어서 동창회의 귀중한 정보가 집대성되어 시계탑에 2페이지의 기사로 발표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미주동창회를 연구하는데 좋은 재료라고 생각합니다.

- 동창회의 앞날에 대해 의견을 말하셨으면 합니다.

동창회 활성화에 대한 제언은 시계탑에 이미 글로 실렸습니다. 요점만 다시 되풀이한다면 (1) 시계탑의 활성화 (2) 동기회와 지역회의 활동을 총동창회의 활동으로 발전시키는 노력 (3) 임원 이사진의 대폭적인 확대를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기구가 짜여지더라도 이것을 실천화하는 것은 회원 각자의 관심과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부언을 한다면 시계탑의 편집위원을 한 지역에 한정하지 말고 전국화 해야겠고 위원들의 세대교체가 없이는 경직된 현상을 피해가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존재

노승국 (70, 텍사스)

존재의 의미가 아무 느낌없이 무거워지는 밤이면 모두 잊고저 서성이는 고적한 시간들 --

시침의 강박감도 숫자뿐인 달력의 형식도 없는 세월 초월한 진공

나는 오늘도 이렇게 죽음을 기다린다.

사회봉사

해외 의료봉사의 기획들

전 희 근(60, 펜실바니아)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Kabul에 Cure hospital이 있다. 120 병상의 병원인데 시설은 극히 부족하다. 그리 크지도 않고 시설도 부족

한데 16명이나 되는 Family practice residents들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2주일 머무는 동안에 레지던트들에게 매일 x-ray와 ultrasound 강의와 함께 회진하였다. 실제적인 임상 경험은 적지만 책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의학지식이 생각보다 높았다.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아프간 의사들의 진지한 태도에 감명을 받았다.

병원 병리과에는 한 명의 Pathology resident가 있다. 아프간에서 처음으로

Pathology resident program을 마련하고 정식 국가 인가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Dr. Thompson 이 미국에서 와서 한 달간 개인 지도를 하고 있다. 계속해서 단기로 1~2개월 레지던트를 가르칠 자원봉사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비록 지금은 한 사람에게 불과하지만 아프간에서 처음으로 Pathology resident 를 양성한다는데 그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Pathology 이외에도 마취, x-ray, Ultrasound 등의 미국 의사가 와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특히 정형외과 의사와 소아과 의사를 시급히 기다린다. 의사를 기다리고 있는 병원이 이곳 아프가니스탄 뿐이겠는가. 세계 여러 곳에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는 병원들이 많다. 거의 대부분이 무료로 자원봉사를 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과거의 해외 의료봉사는 많은 경우에 무의촌 진료를 하였다. 따라서 병리나 마취나 x-ray같은 분야는 별로 갈 수 있는 병원이 아주 적었다. 그러나 요즘 와서는 양상이 달라졌다. 대학병원이나 또는 레지던트가 있는 일반 종합병원에서는 각종 특수 분야의 전문의들이 와서 teaching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많은 서울의대 동문들이 미국에 와서 최고의 트레이닝을 받았다. 은퇴 후에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물론 priority는 relax이다. 마냥 게으름을 피우고 싶다. 골프나 여행도 여유있게 즐기고 싶다. 그러나 일년에 잠시 2~3주일 정도 후진국에 가서 그곳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은 가치 뜻 깊은 일이라고 믿는다.

대부분 자원 의료봉사를 할 수 있는 곳은 기독교 계통의 선교병원이다. 대부분이 기독교인 의사들로 구성된다. 그러나 아프간의 Cure 병원 같은 곳은 꼭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갈 수가 있다. 어떤 종교를 믿든지 또는 아무 종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관이 없다. 중동에 있는 선교병원은 문이 활짝 열려 있다. Cure 병원을 보면 몇 사람의 Medical missionary를 빼 놓고는 모두가 회교를 믿는 Muslim들이다.

의료봉사를 잘 해 보자는 뜻에서 2006년 11월 3, 4일에 Irvine, California에 있는 베델교회에서 처음으로 한미 의료선교대회를 열었다. 850여명의 코리언-아메리칸 의료인들이 모였는데 약 200명 이상이 1.5 와 2세 들이었다. 서울의대 75년 졸업 동문인 한일 산부인과 의사가 크게 활약하여 선교와 자원봉사에 관심이 있는 코리언-아메리칸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이다. 대회를 성공리에 잘 마친 후 이어서 미주기독교의료선교협의회가 발족하였다. (KAMHC, Korean American Mission Health Council) KAMHC는 의료선교를 부흥시키려고 생긴 기독교인들의 모임이다. 그러나 이런 기관을 통하여 누구든지 자원 의료봉사를 할 수 있는 Information을 얻을 수 있다. 그 대표적인 한가지 예가 아프가니스탄의 Cure hospital 이다. 기독교인은 물론이거니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라도 후 자원봉사를 원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미주기독교의료선교협의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란다.

KAMHC / Chairman 전희근(60)
(Korean American Missions Health Council 미주기독교의료선교협의회)
Website: www.kamhc.org

2001년 여름 Canada Rocky에서 우리 총동창회가 있었고 그해에 본인이 신임동창회장직을 맡게 되었다. 그때 참석하신 박세록 동기생을 만나서 "좋은일 많이 한다"는 인사를 하였더니, 평소 동기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는 그 친구가 처음으로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그래서 그 친구의 하는 일을 직접 가서 보기로 결정하고 2002년 4월 25일 와이프와 같이 소련과 중국 의료봉사팀에 합세하였다.

가방에 옷가지와 SAM (Spiritual Awakening Mission)에서 온 의약품들을 사이사이에 넣어 꾸리고 간식거리와 화장지도 잊지 않았다. 우리 Russia 팀과 중국의 두 팀(장백과 집안)도 합 65명이 거의 자정이 다된 시각 LAX 공항에 모여 임동선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인천으로 떠났다. 우리 Russia팀에 60년도 졸업하신 김영욱 선배 내외분도 필라델피아에서 오셔서 합세하셨다. (사진 참조)

우리 일행은 인천에서 블라디보스톡행 비행기에 올라 27일 정오가 지나 아직도 겨울에서 벗어나지 못한 앙상한 나무들로 싸여있는 조그만 공항에 도착하였다. 금발의 젊은 여군의 감시 속에서 혹시나 의약품이 압수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초조함으로 한동안 불안했으나, 현지에서 목회하시는 김목사님의 원만한 사전교섭으로 무사히 통과하였다. 비행기속의 러시아인들이 면세점에서 미국담배와 보드카를 사가는 모습이 매우 이색적이었다. 도착한후 러시아 교회에서(한국 목사님) 환영예배가 있었는데 60세 이상의 러시아 여성 합창단과 틴에이지들의 울동찬양이 특이했다.

곧 이어서 김목사님의 안내로 고려인 수용소로 떠났다. 고려인은 19세기에 한국에서 온 한민족으로 한때 스탈린 독재하에 강제로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주를 당하였으나, 그 후손들이 선조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살고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군인들이 쓰던 낡은 병사에서 살고 있었다. 전기값을 내지못해서 복도에는 전기도 없이 어두웠고, 방하나에 한가쪽씩 살고있는 그들의 생활이 너무도 비참해서 눈물이 앞을 가렸다. 간단한 예배후에 준비한 쌀을 전해주었다. 나도 이러한 환경에서 태어났다면 저들과 무엇이 달랐을까 하는 생각에 잠기면서 내가 얼마나 행운아인가를 다시 한번 느꼈다. 저녁에 안내된 호텔도 형편은 마

사회봉사

봉사에서 오는 즐거움

조 한 원(63, 남가주)

찬가지여서 샤워에서는 더운물이 나오지 않았고 타월도 구경할 수가 없었다.

다음날 4시간의 버스여행으로 김일성이 특별군사훈련을 했다는 빨지산 스키(약 5만명의 인구로 그중 고려인이 10%)로 이동하여 의료봉사를 실시하였다. 미국에서 온 유능한 의사들을 보기위해 모여든 러시아 환자들은 여자가 대부분 이었고, 몸집이 비대해서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의 증세가 제일 많이 나타났다. 밀려온 환자들을 다보지 못해서 결국 몇몇은 돌려보내야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저녁에는을 립픽 호텔에서 더운물로 샤워를 할 수 있어서 한결 피로가 풀리는듯 했다.

다음날은 블라디보스톡으로 이동해서 시내구경을 하려 했으나 날씨가 몹시 추워서 버스로 높은 공원에 올라가 시내를 잠시 내려다 보는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오후에는 우랄리아 한국교회에 도착하여 2차 진료를 하였다. 환자는 그 지역의 40여명의 한국 목회자와 선교사 그리고 그 가족들이었는데 우울증이 제일 많았다. 추위와 언어장벽 속에서 선교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 사모님들은 더 힘들어 보였다.

다음날은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향하기 위해 새벽 5시에 버스에 몸을 실었다. 검문소를 통과할때는 초조함으로 긴장이 되었다. 화장실이 없어서 남자는 우측 여자는 좌측으로 가서 나무 뒤에서 일을 보아야 했다. 검문소에서는 미국담배를 건넸더니 초소병이 검문도 하지않고 통과시키기도 했다. 두만강을 따라 북한땅을 가까이 바라다 보면서 중국 훈전에 도착했다. 소련에 비해 이곳은 경작이 활발했고 도로공사도 한창이었다. 연변의 제일 큰 도시 연길에 도착해서 호텔에 여장을 풀고 잠깐 휴식후 대성(용정)중학교-운동주 시인 등 많은 독립투사를

배출한-를 방문했고, 비암산의 일송정에 올랐을때는 김목사님이 선구자 노래를 불러주어 감격스러웠다. 연길을 떠나 26시간의 기나긴 기차여행으로 단동에 도착하여 중국의료팀과 함께 단동병원에서 찬양의 밤을 보냈다.

다음날은 단동시내를 구경하고 압록강의 끊어진 다리를 보면서 선상기



도회를 가졌다. 강건너의 신의주는 단동과는 대조적인 모습으로 마치 죽은 도시와도 같았다. 점심에는 북한에서 운영하는 청류관에서 '반갑습니다'를 부르는 북한의 아가씨들의 환영을 받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합창하면서 분단된 조국의 슬픔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다.

짧은 일정이었으나 한국이나 미국에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축복속에 살고있는지, 남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일인지 절실히 느끼고 돌아왔다.

우리 미국에 있는 수재라 불리우는 서울의대동창여러분! 그동안 의학계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훌륭한 업적을 쌓으시고 단란한 가정을 이룩한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저는 약 2년반전 갑자기 닥친 Heart Surgery(Bypass)를 UC

LA 에서 받으면서 죽음을 현실로 느껴보게 되었는데, 죽음 앞에서는 돈도 명예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졸업하고 훌륭한 가정을 이루고 경제적인 여유를 누린 행운아들이 앞으로 어떻게 여생을 보내는 것이 바람직한가 생각해 보지않은 분이 없으실 것입니다.

훌륭한 봉사활동을 하고계신 동창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2003년에는 66년에 졸업하고 휴스톤에서 활동하고 계시던 김의신 내외분을 만나 단동에서 같이 진료하는 즐거움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특히 우리 동기인 박세록 동문이 하는 일을 직접 가서 보고 느끼며 눈물을 흘렸고, 나를 일깨워준 그 친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피곤한줄 모르고

부와 명예를 마다한채 봉사하는 그 친구의 열정을 부러워 합니다.

존경하는 동창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와 재능, 즉 의술은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인종과 정치와 종교를 초월한 봉사활동의 좋은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선두에 서서 타인의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 되며 성공을 이룩해온 우리가, 앞으로 남은 생애를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에 바침으로 우리의 가슴에 담긴 사랑과 열정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게 되기를 겸손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사진: 2002년 블라디보스톡에서 60년 졸업 김영욱 선배 내외분, 박세록, 필자 내외)

사회봉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필라지부 필라여성회
가정상담소 설립 21주년을 기하여

한(이) 혜 원(61, 필라델피아)



필라여성회 (가정 상담소)는 21년전인 1986년 4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이었던 고 이태영 박사의 권고로 미국에 세우신 지부중 10번째 지부로 창립식을 가졌다. 당시의 발기인원은 18명이었고 회장은 한혜원, 이사장은 신은자였다. 이 박사는 그 당시 이민 온 많은 교포중 특이 국제결혼한 교포들 중에서 이혼율이 증가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미 정착해서 자리잡은 교포들이 스스로 자원봉사정신으로 불우한 이웃을 스스로 도움자라는 정신으로 상담소를 설립하도록 여러차례 밤미하면서 각지방의 여성들을 만나 격려해 오셨던 것이다.

필라여성회 (가정상담소)의 목적은 두가지로서 첫째 목적은 교포사회의 문제들을 무료로 상담을 해주는 일이고 둘째 목적은 재미교포들을 조금이라도 효과있게 돕기위한 회원들의 지식향상을 위한 교양강좌이다.

상담소의 보고지로서 '필라여성'이라는 기관지를 거의 매년 발간해오고 있다. '필라여성'지에는 가정상담소의 상담활동상황을 발표하고 매달해온 강좌내용을 게재하고 그 강좌 이외에도 이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률 상식, 의학상식, 2세자녀교육에 대한 지식, 가정폭행을 방지하고 해결하는 미국법에대한 상식, 2세자녀들의 전문교육 안내, 이세들의 결혼 문제 등을 다룬 전문가들의 글을 게재하고있다. 또 회원들의 여러 분야의 좋은 글들도 발표하고 있다.

거의 매달해오는 강좌모임이외에도 전 교포를 위한 일반 강좌를 일년에 한번씩 열어 그 토픽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패널 토론회를 개최, 그때의 토론내용을 '필라여성'지에 기재하기도 하였다. 1986년 5월 부터 2006년 9월 까지 131번의 월례강좌가 있었고 그 중 일반인들을 위한 강좌는 19번 있었다.

일반인들을 위한 토픽들은 'Korean Americans 의 장래', '이세들의 장래를 위한 강좌: 고등학생, 대학생, 사춘기, 사회학적 문제' 등을 전문가들이 다루었다. 그 외에도 Career options 이라는 토픽아래, engineering, medicine, finance, communication, business, law 등의 젊은 이세 전문가들의 강좌 및 토론이 있었고, 그외에 '이중문화속의 자녀교육', '2세들의 이성교제와 결혼', '정경화, 정명훈 등의 자녀를 어떻게 키웠나', '이세들의 직업전망', '미국생활의 정신건강', '21세기를 향한 청소년 지도의 방향' 등의 일반강좌가 있었다. 이들 토픽들의 많은 부분들은 그 해에 발간된 필라여성지에 기재되었다.

2006년 10월로서 창립 20 주년에 필라여성지 17호가 발간이 되었다. 경제사정으로 매년의 출판이 어려워 가끔 2년에 한번 출판하기 때문이다.

회원은 이사와 회원 합하여 2006년 5 월까지 193명 이었고 현재도 뜻있는 분들이 계속 가담하는 상태이다. 회원 모집에는 회원들 각자가 어느 모임에 참가하는 때마다 필라여성지를 배부하면서 흥미가 있어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담소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한달 5불의 지원으로 상담소 운영에 도움을 줄수있다는 설득으로 거주지에 상관없이 누구나 회원이 될수 있음을 제시하여 이런 식으로 가담한 타주 회원도 상당수를 차지한다. 물론 시간이 흐름에 따라 회원참가수는 변할수도 있다. 그러므로 상담소 운영은 회원들의 회비로 하고 있다. 이사는 매월 20불을, 일반 회원은 매월 5 불을 지불한다.

무료상담은 상담학을 전공한 심영미씨(73 심완섭동문부인)가 주동이 되어 여러인원들이 십여년간을 번갈아가며 전화상담을 해오고 있다. 현재 2006년 7월 까지 해온 상담수는 3,724 건. 그중 가정상담이 1,149건(그 중 가정폭행이 76건), 자녀교육상담이 229 건, 노인문제상담이 258건, 의료상담이 197건, 기타 법률문의, 정보문의건들이 1,891였다. 상담은 주중(weekday)에

이다. 놀란 가슴을 진정 시키고 계속 읽어나갔다. 내 번호가 나왔다. 가슴이 뛰었다. 포켓에 있는 수험증을 내어 다시 확인해 보았다. 그래! 내 수험 번호였다. 합격! 합격이었다. 정말 감격스러웠다. 이렇게 좋을수가.....

내리는 비를 맞으며 승리자의 마음으로 광화문 우체국으로 걸어갔다. 학수고대하며 기다리시는 어머니께 전보를 보냈다. 내가 사는 전주에도 그 날은 비가 오고 있었다. 제때에 소식이 오지않아 어머니는 낙담하시며 나의 담임선생님을 원망하고 계셨다. 그때에 연세의대에선 무시험제였었다. 마침 그때 밖에서 "전보요!" 하는 소리가 있었다. 하나 뿐인 아들의 합격소식이었다. 어머니의 감격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

학교를 시작했다. 신입생 120명 모두가 새로운 얼굴들이었다. 내가 살다 온 시골, 전라북도 전제에선 나밖에 없었다. 서먹한 가운데에서도 우리 모두는 곧 동료애로 서로 적응했다. 우리 신입생 모두가 다 같이 서로 적응해 나갔다.

서울의대 6년의 생활은 정신없는 나

10AM- 4PM 사이에 215-635-5158로 전화하면 상담을 해드리고 있다.

이민생활을 하면서 다른 불행한 교포들을 조금이나마 돕고져 하시는 분들은 남녀 상관없이 회원 혹은 이사가 되실수 있다. 교양강좌 때에는 남녀가 다 같이 모인다. 같은뜻을 가지고 힘을 모아서 우리보다 불우한 이웃들을 조금이나마 돕고자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우리 필라여성회의 본질이다. 필라여성회 20년의 역사속에서 회장으로서는 처음 한혜원이 14년 연속 근무하였는데 이는 모두들 회장직을 기피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다가 겨우 설득하여 제2대 회장으로 이봉순(의사, 펜실바니아 의대출), 제3대에 윤정나(바이올리니스트, 서울음대, 피바디 음대출), 제4대가 송미카엘라(의사, 고려의대출), 2006년에 지난 십여년간 주 상담자로 수고해주시던 심영미(이대 상담학 석사 특위)가 제5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회원들의 모임, 계속적인 상담, 기관지 출판 등 별 큰 어려움 없이 이 지방의 무료 상담기관으로서 힘든 이민생활의 여러가지 괴로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역할을 해온 우리기관임을 보람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일이 가능할수 있었던 것은 물심양면으로 뒷받침해 온 이사와 회원들의 사랑과 협조이었음을 자랑스러이 말하고 싶다.

상담소를 위해 수고해주시는 동문(혹은 동문부인)들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현재 동문이나 동문부인으로 요직을 맡은 분들: 회장 심영미(73, 심완섭동문부인), 이사장 한(이)혜 원(61), 부이사장 Dr. 이영완(56, 이연찬 동문부인), Dr. 정정혜(62, 정정수동문부인).

전에 간부역을 맡아주셨던 분들: Dr. 송 Michaela(전회장, 60, 송영두 동문부인), Dr. 정정혜(전이사장, 62, 정정수동문부인).

이사 혹은 회원으로 도와 주신 동문(혹은 부인)들: Dr. 최혜숙(59), Dr. 이명숙(61), Dr. 김경자(55, 김경태동문

부인), 김병애(57, 김일훈동문부인), 이희영(58, 이만택동문부인), 김연희(58, 김학륜동문부인), 전영애(60, 전희근동문부인), Dr. 김인순(60, 김영욱동문부인), 이성주(61, 이재승동문부인), 강경자(61, 강창욱동문부인), 이상희(62, 故 이정기동문부인), 신성현(63, 신영규동문부인), 양강자(64, 양운택동문부인), 김광옥(64, 강용국동문부인), 김연빈(71, 김훈동문부인).

남자 특별회원으로 donation 해주신 동문들: 김한중(62), 홍준호(67).

연사로 모셨던 동문(혹은 부인)들: 김일훈(57), 신상균(58), 이만택(58), 임낙중(59), 김병석(59), 전희근(60), 한수웅(61), 박승균(61), 서휘열(61), 정정수(62), 송영두(62), 김영남(68), Dr. 한윤희(73, 방병기동문부인), 심영미(73, 심완섭동문부인)

필라여성지에 투고해주신 동문(부인, 가족)들: 홍창의 교수, 김익창(56), 김삼옥(56, 김익창동문부인), 노용면(55), 김경태(55), Dr. 이영완(56, 이연찬동문부인), 정구영(57), 김일훈(57), 이희영(58, 이만택 동문부인), 이운순(58), 신상균(58), 임낙중(59), 전희근(60), 전영애(60 전희근 동문부인), 박승균(61), 한수웅(61), 서휘열(61), 정의철(61), 이명숙(61), 심영보(61), 한혜원(61), 서혜수(61, 서휘열동문부인), 송영두(62), 정정수(62), 이상희(62, 故 이정기동문부인), 정유석(64), 김영남(68), 김명원(68), 심영미(73, 심완섭동문부인), Dr. Thomas Kim(57, 김일훈동문



아들), Carolyn Hann, Esq(61, 한수웅동문 딸), Sarah Lee (62, 故 이정기동문 딸), 사진설명: 필라여성회 정기모임.

P.S.: 혹시 상담소를 도와주시고 싶으시거나 회원에 가입하시고 싶으신분, 필라여성지를 받고 싶은 분은 215-635-5158(심영미 회장)이나 215-955-5806(한혜원)으로 연락하시면 기쁘게 응답하겠습니다.

신입생

이 영 웅(62, 오하이오)

"떡 사요! 떡 사요!"
이 떡 먹어야 합격해요!"
지금으로부터 51년전, 홀어머니 손을잡고 종로에서 버스를 내려 서울의대 입학 시험장에 갔다.
떡장수의 외치는 소리가 귀에 쏙 들어왔다. 행여하는 마음에 불쑥 10원을 주고 나도 모르게 떡을 사 먹었다. 시험을 치루고 발표 날을 기다렸다. 그때의 조린 마음이란 아마 우리 동문들은 모두 겪었을 것이다.

드디어 발표날이 되었다. 그날은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었다. 문리대 건물 앞에 붙여 놓은 합격자 번호를 차근차근 읽다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갑자기 번호가 뛰어 넘은 것

이제야 내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었다.
하와이에서 45주년 동창회가 있다는 소식이 왔다. 가고 싶었다. 처음으로 동창회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든 것이다. 51년 전 서울의대 신입생 때에 설레이든 그 마음이 다시 나를 휩쓸었다. 아내와 하와이행 비행기를 탔다. 가는 내내 실감이 나질 않았다.
45년 만에 처음보는 얼굴들이었다. 51년 전 처음 보았던 그 얼굴들이, 처음 신입생때 처럼, 또 모두가 낯설었다. 다시 신입생이 된 기분이었다. 그때, 나는 다시 신입생이었다. 51년 전 그 서먹서먹함이 점차 동기에로 차갔듯이 또 다시 나는 동기에로 차기 시작했다. 미국생활 42년 동안 한번도 동창회에 가보지 못한 나! 거기에 비해 42년 동안 자칭 개근왕 정정수 동참도 있었다. 집으로 돌아 오면서 나는 다시 51년 전의 그 신입생 마음을 느꼈다. 이젠 나도 개근상을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닐까! 51년 전 그 신입생의 신선한 마음으로 시작해 보는 것이다.

나는 졸업후 한번도 동창회에 참석하질 못했다. 나의 미국생활 전체가 너무나 바쁜 나날들이었다.
아내는 아내대로 나는 나대로 아이들 여섯 뒷바라지에 정신이 없었다. 나의 취미생활, 나의 동창, 나의 옛 추억 조차 생각할 여유가 없던 42년이였다.

2006년, 드디어 막내 딸이 대학에 갔다. 집에는 나와 아내만 남았다. 한숨을 돌릴 수가 있었다.

그러는데 동창회 소식이 왔다. 맞아! 내가 잊고 있었던 것이다. 그전에는 대강 눈으로 훑어보고 버린 동창회소식이 눈에 쏙 들어왔다. 그랬다.

2007-2008 Executive Officers & Committee Chairs



President
YoungJa Choi (66)



President-Elect
Hyoyun Youn (69)



1st Vice President
Balshik Min (66)



2nd Vice President
Syng Yong Kwak (71)



Secretary
Sunhee C. Lee (81)



Treasurer
Seoung Baik (79)



Finance
Soon Chae Choi (66)



Scholarship
Yong Ho Auh (72)



Fund-Raising
Dai Ok Moon (72)



Fund Management
Michael M. Lee (66)



Research & Fellowship
Hie-Won Lee Hahn (61)



Green Project
In Suk Seo (73)



Publication
Byung Suk Kim (59)



By-Laws
Yong-Myun Rho (55)



Advisory & Exchange
Man-Tack Lee (58)



Nominating
Dong-choon Jo (64)



Silver Project &
Office Management
Kenneth K. Song (64)



Directory/Website
Sung Keun Lee (66)



Convention Chair
Chong Hyun Lee (66)



Scientific Chair
Youngin Lee (86)



Charity
Yongku Hwang (72)

2007 ~ 2008년도 동창회 운영단의 활동:

이번 동창회의 Mission을 성취하기위하여 분주다망하신 운영위원과 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젊은 세대의 동문들 그동안 만나오시던 동문들께서도 가까이 동창회에 봉사하시기로 승낙하셨습니다. 이번 회장단의 Theme 은 '봉사'입니다. 동창회공동체를 위하여 사회와 인류복지를 위하여 여러 동문들께서 새로운 전망을 추구하도록 수고하십니다.

Convention (Chair, Chong Hyun Lee, MD, '66)

Las Vegas는 사막의 오아시스로서 Family Entertainment로 가장 좋은 도시입니다. 근교에 있는 그랜드 캐년을 비롯하여 많은 관광도 할 수 있습니다.

2008년 3월 16일 부터 20일 까지 개최되는 연례대회에는 모든 동문들이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모든 동문들(1934년부터 2002년도에 졸업하신)께서 다 한자리에서 과거 학창생활을 돌이켜보며 모교의 긍지를 새로 인식하고 자랑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3월 17일에 있을 Re-union에서는 동문 숫자가 적은 학년들을 위하여 다같이 모일수 있는 큰 연회장소를 마련하여 라스베가스에 있는 한국연예인을 초청하는 등 재미있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Convention 전후 관광 프로그램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또한 부담 줄이기 위하여 방값이 적고 조용하면서 아담한 Suncoast Hotel로 정했으며, 이 장소는 골프 코스로 가는 교통도 편하여서 좋은 점이 많습니다. 비행장이나 중심상가 지역에도 30분 마다 버스운송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63년도 동문들께서는 졸업 45주년기념행사를 컨벤션에서 하기로 계획하셨습니다. 다른 학년들도 동기모임을 라스베가스에서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Scientific Symposium (Chair, Francis Youngin Lee, MD '86)

우리 의과대학 전통을 지키고 젊은 동문들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Category 1 CME 13-15 Credit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모든 동문들과 Spouses도 다같이 즐길 수 있는 Common Topics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과 미주 동문들의 의학계의 공헌을 다 같이 나누기 위하여 첫째 날은 Joint Symposium을 구상하고 있으며 모교 왕규창 학장님께서 각종 special fields의 연사들을 선정해 주셨으며 김규환 부학장께서는 Associate Scientific Chair로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또 동문 자녀들의 적극적 참여를 위하여 Joseph Shin, MD (Plastic Surgeon at Yale School of Medicine) 2세가 Associate Scientific Chair로서 봉사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의학 이외의 다른 계층에서 활동하는 자녀분들도 참여를 권장하오니 동문들께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Charitable Activities (Chair, Yongkyu Hwang, MD '72)

저희 동창 여러분들은 은혜와 축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러기에 한편으로는 빚진자입니다. 동문 모두가 역사와 사회와 인류와 민족의 기대에 더욱더 책임적인 공동체로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위한 사업에 다같이 봉사하는것이 좋겠습니다. 동창회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앞으로 동창회원 모두가 참여 할수있는기회가 되도록 다같이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로 부터 보다 큰 존경과 신뢰를 받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봅니다. 모든 동문이 다같이 참석하기 위하여 위원으로서 Michigan의 조의열(66), LA의 이희영(71), Chicago의 강창만(64)동문께서 같이 봉사하시도록 하셨습니다. 비용이 적게드는 첫째 project 로서 질병방지 강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노화방지 이외에도 청소년들의 건강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한국인과 다른나라 사람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문 여러분들의 조언과 도움을

바라겠습니다. 이외에도 동문들께서 이미 하시고 계시는 사회복지사업, 더구나 무료 의술봉사 등에 참여하여 그분들께서 하시는 사업이 더 확장되도록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Public Relation (First Vice President, Balshik Min, MD '66)

동창회 운영에 필요한 Annual Dues를 납부하신 동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돌아오는 해에는 모든 동문들께서 깊은 관심과 열의로써 100% 납부하시기를 바랍니다. First Vice President이신 민발식 동문께서 각 학년대표와 지역대표분들께 연락할 예정이오니 적극 협조하시기를 바랍니다.

Management of Budget (Treasurer, Andrew Seoung Baik, MD, '79)

백동문께서는 모든 비용을 꼭 필요한 곳에 적절히 쓰도록 관리하여 가능한 한 흑자가 되도록 노력중입니다.

Fund-Raising Activities (Chair, Dai Ok Moon '73)

동창회 기금이 충분하면 여러면으로 사업활동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많은 동문들께서 회비이외에도 사회사업기금이나 Green Project 기금을 보내주시어 동창회가 지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는 제약회사 등을 접촉하여 열심히 기금모금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Directory / Website (Chair, Sung Keun Lee, MD '66)

주소록은 교류소환에 유일한 도구입니다. 그간 주소와 전화 직장 변경 등을 update 하도록 하였습니다. Website을 2년전에 설치했으나 사용하는 동문이 많지 않았습니다. 웹사이트를 통하여 수시로 접촉할수 있도록 웹사이트 사용을 활성화 하여야 하였습니다. 현 동창회 웹사이트는 유지비용 관계로 프로그램을 upgrade 못한 상태임으로 한국 동창회의 웹사이트의 한 모퉁이를 쓸 수 있는 가능성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분국동창회와 미국동창회가 가까워지고 앞으로의 동문들의 활동과 동정을 교류에도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New York Chapter Activities (2nd Vice President, Syng Yong Kwak '71)

Annual Ball은 11월 10일, 뉴저지 대원에서, 그리고 추계 골프대회는 9월 22일 Bergen Hill에서 있을 예정이오니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Dr. & Mrs. 광께서 모든 동문이 즐길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장만하고 있습니다.

Green Project (Chair, In Suk Seo, MD '73)

지난 수년간 미주동창회와 한국 서울의대 학장실 그리고 본과학생들의 열의와 협조로 project에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Project가 성공적으로 execute 되도록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기금 마련을 위한 노력에 협조해 주십시오.

Publication Committee (Editor-in-Chief, Damian Byung Suk Kim, MD '59)

시계탑 위원 동문들의 고심과 수고를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시계탑을 통하여 동창회의 활동상황 회원들의 소식을 적절히 잘 보도할 수 있도록 많은 소식과 원고를 보내주시요. 앞으로 발행되는 시계탑에는 글을 쓰시는 동문들의 사진을 첨부하여 동문들께서 지상을 통하여 안면을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시계탑 원고에 적극 참여 하시기를 바랍니다.

Research & Fellowship Committee(Chair, Hie-Won Lee Hann, MD '61)

함춘의학상 대상자 선출에 응모가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위원으로서 강수상(53)선배님과 김의신(66)동문께서 수고하시게 되었습니다.

- 총무 이 선 희(81), 회장 최 영 자(66)

동창회 운영에 관한 역대 회장님들의 조언

제4대 회장 김정준(52)



내가 소망하는 삶의 한계 나는 이 삶의 한계 안에서 enlightenment(깨달음)을려고 노력하고 있다. 내 자신이 그렇게 되고 싶지 않은 족속들이 몇 자기신조(믿음)로 눈이 멀어버린 극 보수파 종교인 왜곡된 신조로 사는 공산당들, 이 둘은 서로가 너무 닮았다. 북한과 남한에는, 또 미국에도 이런 사람들 득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맹신(盲信)은 무서운 것이다.

그 다음은 자기 자람에 도취한 사람들. 각광(脚光)을 지나치게 좇은 이들이다. 그래서 회장님, 박사님, 또는 장로님 등으로 불리우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한다. 우리 주위에는 그런 이들이 많이 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며 행동하는지 마치 지나가 버린 과거처럼 나로서는 여쭙할 수 없는 일들이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지금 이 삶의 한계 안에서 나로서는 마음의 태세를 내가 좇고하고 또 육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세월이 갈수록 더욱 의미가 깊어진다. enlightenment는 진지한 삶에 사랑의 길을 가르쳐 줄 것이다.

제10대 회장 노용면(55)



나는 우리 동창회 제10대 회장으로 1981년 부터 1982년까지 사이에 일을 했었다. 일년동안 아주 바쁜 일정을 보냈는데 김용두(64) 총무의 도움이 참으로 컸다. 내가 한 여러가지 일들 중에서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동창회 회칙을 잘 정리했고, Scholarship Fund 책정, guideline, Local Chapter sharing guideline, 그리고 Class activity를 돕는 guideline을 정하는 것 등이었다. 동창회가 앞으로 재정문제를 꼼꼼히 처리하면서 일해 나가기 바란다. 우리 동창회의 앞날을 위해 할 말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선배님들에게 자주 연락하여 그들의 안부를 묻고 후배들이 동창회 행사에 많이 참여하도록 격려하는 것이라 본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 각자 지는 책임의 몫임을 늘 기억하기 바란다. 우리 시계탑이 잘 성장하고 있는데 동문 여러분들이 많은 협조를 해 주기 바란다.

제17대 회장 이동성(57)



최영자 회장님, 앞으로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창회를 여러면에서 성대하고 훌륭하게 이끌어 주신 모든 동문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은퇴하시는 동문들이 늘어나고 젊은 동문들은 점차 즐기 때문에 동창회 운영에 더많은 애로가 있을것이라 사료됩니다. 앞으로의 행사에서 senior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이 넣어 다함께 즐길수 있고 또 행사에 참석할 의욕이 생기도록 하여주셨으면 합니다. 내년 라스베가스에서 뵈겠습니다.

제23대 회장 한성업(59)



신임회장님의 부탁에 따라 조언의 말씀을 생각해 본바 있으나 그간 별로 한일도 없는 저로서는 조언이라기 보다는 반성문이 더욱 적합할 것 같고 저 자신 더욱 반성하려 합니다. 역시 동창회의 적극 협조로 우리 동창회원의 의무이기도 하였습니다. 타의 추월 허락치 않고 우리가 자부할 수 있는 우리 모임을 위해 그간 많은 동문들 노고가 있었기에 이데 다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프로그램을 갖춘 모임일지언정 우리 동문의 적극 참여가 없다면 그 의의를 상실할상 싶습니다. 우리 59년도 동기의 예를 든다면 벌써 여러해 동창회 참석이 부진해 왔고 우리 class reunion의 모임을 가진일도 한참 되었습니다. 늘어나는 연륜을 막을 수 없고 우리 동문들의 평균 연령이 증가함에 따르는 일반적인 추세가 아닐까 하는 우려도 생각합니다. 은퇴, 이주, 건강장애 등 우리 주변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 불행하게 하나 둘 타계하시는 동문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런즈음 역시 오랜 친구인 동기생끼리의 모임은 더욱 뜻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라스베가스와 같은 충분한 시설을 갖춘 world class resort에서 라면 누구나 며칠쯤 가까운 친구 동기생과 그들의 가족과 함께 즐길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바라건데 내년엔 모든 동기회가 빠짐없이 리유니온을 일찍 계획하시어 이왕이면 한국에 계신 동기도 초대하여 뜻있는 모임을 가지므로서 일거양득의 결과를 가졌으면 합니다. 다시 우리 동창회의 성장과 성공을 빕니다.

제23대 회장 김기태(58)



반세기 전 한 순진한 시골 소년이 서울대학교에 입학했다. 신이 돌보아 주신 행운이라 여겼고 자랑스러워 했다. 모교에서 키워낸 한 평범한 의사가 되었고 또 의과대학교수직 31년으로 은퇴했고, 그사이 모교를 위시해서 모국의 여러 의과대학 초빙교수로, 많은 후배들의 교육 및 의 사로서 할 수 있는 사회봉사 등도 함께 공부했다. 반세기는 숫자적으로 무척 긴 세월인데 불과 몇년전의 일같이 생각이 든다.

모교가 world class 대학 서열에 올라가고 academic leader가 되기를 기도한다. 나는 동문들의 모임을 좋아하고 만나면 언제나 흐뭇하고 즐겁고 친정 식구 자매 형제를 만나는 기분이다. 허나 슬프고 아쉬운것은 동문들이 유명을 달리했다는 소식, 또 우리 서울의대 미주동창회가 해마다 회원이 줄어든다는 사실이다. 여러 동문여러분! 우리 서울대학교의과대학 미주동창회를 계속 존속시킬 수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 주십시오.

제28대 회장 한성수(60)



1999년 7월 1일부터 2000년 6월 30일까지 미주동창회 20대 회장직을 맡았던 60년도 한성수입니다. 2002년 6월 30일 미국에서의 소화기내과 및 내과 31년간의 개업을 끝내고 클리브랜드 오하이오를 떠나 2003년 이곳 Western Central Florida Citrus Hill Village에 은퇴하였습니다. 2003년 9월 1일부터 2005년 10월 30일까지 한국 천안에 있는 단국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소화기내과 임상교수로 초빙을 받아 한국에서의 생활을 즐겼고 다시 미국에 돌아와 매일 골프를 치고 은퇴생활을 즐기며 지내고 있으며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유카간 멕시코, 중국, 한국 등지에 의료 선교도 다니며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곳 한국 가정이 50여 가정이 살고 있고 우리 동문 가정만도 15가정이 되고 또 앞으로 오실분들을 합치면 20가정이 될 것이며, 올랜드, 탬파, 더 빌리지 등지를 합치면 Central Florida에 40가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곳에 동창회 지부가 생겨야 될 것 같습니다. 회장님이 선배님들에게 부탁하세요.

지난 일들을 생각하면 1999~2000년 클리브랜드에서 동창회 일을 맡아볼 때 연례만찬과 하계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고 그 외 모든 일들을 잘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저를 보좌해준 총무 재무 행사위원장 부회장 등 모든 임원진과 사모님들의 헌신적인 희생의 결과입니다. 힘들었던 일도 있었고 보람을 느낀 일도 있었습니다. 다 우리를 길러 준 모교와 동창회에 대한 애착에서 한일이고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동창회가 노령화되고 동창들의 관심이 약해지려는 이때 능력있는 최 회장님이 회장직을 맡게 되어 마음이 든든합니다. 내년 3월에 라스베가스에서 컨벤션을 갖게 되었다니 잘 결정하신것 같습니다. 그리고 retiree들에게 참가비를 할인해 주시면 참가자가 더 많을 것이고 CME도 너무 academic한 것 보다 우리들의 건강과 직접 관련된 것들을 많이 넣고 non CME lecture도 우리들 특히 retiree들에게 관련이 많은 것들을 많이 해 주세요. 시계탑도 변화가 있어야될 것 같습니다. 동문들에게 설문조사를 한다면지 무슨 panel discussion 을 한다면지 말입니다. 회장님이 시간이 있으면 지부들을 순회하면서 의견을 듣는 것도 좋겠지요.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용서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3대 회장 이한중(65)



서울대학교의과대학 미주동창회 오직 한가지 인연들의 모임; 한국인들의 아나로 태어난것부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들어간것, 육년동안 온갖 고생을 무릅쓰고 함춘원 넘라들며 기여코 졸업하게된 것, 그래서 어찌다 미국에 건너오게된 것, 그래서 이곳에서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어느덧 지식들, 손주들 거느리고 이곳에서 늙어가는 현실, 모두가 인연과 인연들의 연속극들이겠습니다. 그 육년이란 인생의 한토막,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순수하게 무럭 무럭 자라나던 젊의 한토막을, 그 인연들을 이 광활한 미주에서, 타향에서소생시켜 보라 우리 동창회를 세운지가 사십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어느 시인이 이르기를 "--- 일체 象生은 因과 연으로 生滅 한다하니 좋은 만남으로 귀하고 귀하기를 ---" 하였습니다.

이 인연이야말로 우리들이 타향에서 같이 늙어가며 함께 계속 되새기며, 함께 즐길수 있는, 선후배들이 함께 동무뎌가며 쓸쓸함도 같이 달랠수 있는 귀중한 우리들만의 것 이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즉 우리 동창회야말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의 한부분, 우리가 타고난 운명의 한부분, 떼어 버릴수도 잊어버릴수도 없는, 그러나 오직 우리 동문들의 진실한 깊은 마음씨에서 우리 나오는 사람의 생명수 만을 갈망하는 그러한 인연, 그러한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의과대학 미주동창회, 우리들만의 인연들의 모임, 오직 우리들만이 계속 살려내고, 키우고 성장시킬수 있겠습니다. 우리 동문들 계속 아끼며 사랑합시다. 그래서 이 미주에서의 우리들의 성공적인 삶을 제대로 반영한 성공적인 이 단체를 계속 후원합시다. 동창회를 계속 살려 유지하라 동분서주하는, 매년 바뀌는 회장단을 위해서라도, 동창회비는 물론 발전성금 기타, 성의를 보이고, 해마다 열리는 연례총회에도 빠짐없이 참가하여 우리들만의 특이한 삶과 인생들을 같이 축복하고 즐기시다.

회장 최영자 동문으로 부터 부탁을 받아 이 편을 들게 되었는데, 우선 이와 같이 동문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올리고 싶었습니다. 새회장단에게 부탁이 있다면 단 한가지, 지난 회장단들도 노력했듯이, 지부동창회와 학년별 동기회들의 활동들을 총동창회의 활동과 맞닿출 수 있게 하는 것이겠습니다. 그걸이야말로 우리 동창회를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회장과 회장단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南極旅行記 (Antartica)

이 홍 표(64, 남가주)

나는 국민학교 시절에 남극정상을 최초로 방문한 기록을 세우기 위해 노르웨이의 R. Admundsen 과 영국의 Robert Scott team 이 1911년 상상하기도 힘든 酷寒을 헤치며 미지의, 눈속의 불모지를 초인간적으로 두달동안 행군하며 경쟁하던 과정을 쓴 책을 인상깊게 읽었다. 언젠가는 나도 남극을 가보기로 결심하였다.

2007년 2월 12일, 망설이는 아내에게, "March of Penguin" 영화에서 본 귀여운 펭귄들을 너무 노년이 되오기 전에 가서 보자고 설득하여 3일간 Buenos Aires 를 거쳐, '지구끝 도시'라고 하는 Latitude 55도에 있는 남미 Southernmost City 인 Ushuaia 에 3시간의 비행후에 도착하였다. 여름이지만 주위 산들은 아직도 눈으로 쌓여 있었고 가랑비와 함께 쌀쌀한 날씨였다. 이 지역은 옛날 인디언들이 춤기때문에 항상 불을 가지고 다녀서 Magellan 은 Land of Fire(Tierra del Fuego)라고 이름을 지었다. 잠깐 시내관광을 한 후 기다리는 "MV Discovery" cruise ship 에 승선하였다.

남극은 보통 South America 끝에서 Drake Passage 를 지나가는 것이 가장 가까워서 거의 모든 남극여행은 이 루트를 이용한다. 남극해안을 여러군데 자세히 탐색하고 싶으면 National Explorer 나 Soviet ice breaker ship 이 적격이지만 작은배라 풍파때 요동이 많고 recreation facility 가 적은 것이 단점이다. 순탄하고 편하게 가려면 Crystal 이나 Holland cruise ship 이 좋지만 너무 크고 승객이 많아서 남극해안에 상륙이 허가되지 않는다. MV Discovery 는 중간 크기로 남극해안 상륙을 최소한 세번은 특별히 기후가 나쁘지 않으면 한다고 하여서 우리는 選定하였다. 이 배는 1970년 건조된 20,000톤급의 중형 사이즈이고 요즈음식의 빌딩같은 멋있는 cruise ship 과는 달리 전형적인 배 모양의 크루즈쉽이다. 이 배는 1970년 중반기에 인기 있었던 T.V. 시리즈 'Love Boat' 를 촬영하였고 1999~2001년에는 북한 금강산 관광에도 사용되었던, 조금 오래된 배이지만 최근에는 보통 크루즈가 잘 다니지 않은 남극, Greenland, Easter Island 등의 Exploration cruise 를 자주하고 있다. 우리는 2005년 4월에 이 배로 많은 professional astronomers 와 남태평양 끝에 있는 Moai(큰 돌로 만든 얼굴동상)로 유명한 Easter Island 근처에 가서 일식(日蝕)을 관측한 적이 있어 이 배를 잘 알고 있었다.

승선(乘船)한 저녁 MV Discovery 는 심한 파도로 악명높은 Drake Passage 를 향해서 남극으로 가는 행로를 떠났다. Drake Passage는 남미끝 Cape Horn 에서 남극반도까지 600여마일되는 바다인데 남극해류와 태평양 그리고 대서양 물이 부딪치고 furious fifty latitude 의 바람으로 보통 파도가 심한곳이 아니다. 1520년 세계일주를 처음 시도한 마젤란은 위험한 Drake Passage 를 피하려고 남미 남단 섬사이를 두달이나 航海조사를 하여 Magellan Strait 를 발견하였다. 이번에는 비교적 풍파가 적었다고 하는데도

저녁식사에 나온 승객이 절반 밖에 안된거로 보아 파도의 심한 정도를 짐작할만 하겠다. 이 배에는 20명의 special antarctica professional expedition team 이 있어 항해중 계속 이곳의 지리, 역사, 동물에 대한 lecture 를 해주었고 상륙할때마다 zodiac 을 운전하고 해안에서 승객을 인도하였다. 떠난지 36시간 후부터 눈으로 쌓인 인상적인 남극반도 대륙이 보이기 시작



하며 곧 수많은 Iceberg 이 이 섬과 대륙사이에서 천상만상으로 떠 다니고 있었다. 온도는 30F 도 정도였지만 갑자기 구름, 바람이 불면 별안간 추워져서 배에서 준비해준 두꺼운 파카와 모자, 장갑으로 무장하고 갑판에 서서 Truly pristine unspoiled natural beauty 를 몇시간씩 감상하며 고생은 했지만 오기를 잘했다고 생각했다. Iceberg(빙각)은 size, shape 이 천태만상이었는데 어떤 iceberg 는 우리가 탄 배의 서너배는 되고 물밑 싸이즈는 그것의 아홉배나 되니 이것과 부딪치면 우리 배는 순식간에 가라앉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조심스러웠다. 어떤 빙각은 Rhode Island 만한 크기라고 한다. 빙각사이로 물개, 펭귄이 나왔고 고래의 물기둥도 여기저기서 보여 추운 이곳에서도 생명은 계속 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남극반도와 섬사이 바다는 비교적 잔잔하였다. 안전한 항만이 숨겨져 있는 Deception Island 를 지나 Greenwich Island 근처에서 zodiac 을 타고 상륙을 시도했지만 해안가에는 파도가 의외로 높아 그냥 돌아올 수 밖에 없었다. Zodiac 은 motorized rubber(고무) boat 로 10~12명이 타고 해안에 직접 상륙하지만 얇은 물을 건너 땅으로 걸어나가야 하므로 무릎까지 닿는 장화를 신어야 했다.

다음날은 100여년전 스웨덴 탐험대가 표류되어 1년간이나 고생하였던 아름다운 Hope Bay 를 지나 Paradise Harbor 근처 해안가에 도착하였다. 다시 zodiac 을 타고 이번에는 무사히 해안 상륙을 성공하였다. 많은 펭귄들을 보며 남극에 왔다는 진한 느낌을 받았다. 신기하게도 펭귄들은 사람들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아주 가까이 오기도 했는데 와이프가 신었던 무지개처럼 여러색이 있는 갈라폴한 장화를 입으로 톡톡 쏘아보는 것이 색생명은 분명 아닌듯 싶었다. 남극에는 다섯 종류의 펭귄이 있었는데 이곳은 Adeli 종류였다.

남극에는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40여 국가가 남극땅의 소유권, 개발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동물들을 보호하고 인간생활에서 오는 오염을 금하기로 결정하여 scientific lab 밖에는 다른 시설이 없다. 관광상륙도 한번에 100명 이내만 허용되므로 교대로 한시간내로 배로 돌아가는데도 500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7시간 이상 걸렸다. 한번은 배로 돌아가는중에 큰 seal 이 펭귄을 잡아먹으려 하고 펭귄은 날개 방각위로 잡히지 않으려 도망가는 쫓기고 쫓는 모습을 가까이서 보며 video 로 간직하여 두었다.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이는 이곳에도 弱肉強生 이 존재하고 있었다. 위험은 어디든지 있었다. 어미 펭귄들은 수천새끼들의 먹이를 찾아서 자기네들을 잡아먹으려 기다리는 seal 들이 있는것을 알면서도 바다에 들어가야 하는 숙명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동물은 인간과는 달라 그당시 배가 고프지 않으면 필요없이 공격은 하지 않는다. 종종 낮잠자는 seal 옆에서 걸어나가는 펭귄을 자주 보았다. 共存이라 하겠다.

다음날은 Gerlache strait 를 지나 Half Moon Island 에 가서 다시 zodiac 를 타고 상륙하였다. 이번에는 턱밑에 흰줄이 있는 chin-strap penguin 이 수천마리가 눈위에 서서 있었다.

남극과 섬 사이에서 4일을 지낸후 다시 Drake Passage 를 지날때 이번에는 미리 Dramamine 을 먹어 배 멀미를 막았다.

마지막날 저녁 show 는 "Rough notes from Robert F. Scott Diary" Scott 이 처참하지만 용감했던, 자신도 죽어가면서 언젠가는 발견되기 바라며 쓴다는 마지막 일주일의 일기를 배우들이 낭독하여 관중을 감격시켰다. 남극을 Robert Scott 보다 한발 앞서 탐험하고 화려하게 개가를 한 Roald Admundsen 보다는 한발늦게 도착해 쓰라린 패배를 안고 돌아오다, 별안간 더 심해진 혹한과 배고픔, 그리고 동료들의 죽음 지켜봐야하는 갖은 고통을 다 겪으면서 끝까지 classical 한 영국 gentleman 의 model 로 행동하며

최후를 마친 Robert Scott 에 더 끌릴 수 밖에 없는 것은 나만이 아닐것이다.

이틀후 무사후 Cape Horn 근처를 지나 눈덮힌 산사이로 이어지는 조용하고 잔잔한 Beagle Channel 로 들어왔다. 이곳은 1832년 영국 HMS Beagle 배가 와서 Magellan Strait 대체 항로로 발견하였고 그 배에는 22세의 Charles Darwin 이 선장 Robert Fitzroy 의 noble companion 으로 타고 있었다. Charles Darwin 은 처음에는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유망한 신학도 였는데 geology 를 배우고 화석을 본후 bible 창조론에 의심이 생겨서 naturalist 가 되었다 한다. 결국에서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는 멀미가 심해 계속 항해를 같이 할수가 없어 Equador 근처 Galapagos Chain Islands 에 내려서 HMS Beagle 이 돌아올때 까지 몇달을 기다리며 지냈다. 기다리는 동안 이곳에서 그는 같은 동물이 환경이 다른 열섬에서 적자 생존때문에 그 환경에 맞게 진화하는 것을 관찰해서 나중에 "On the origin of Species" 라는 진화론 책을 써서 인류과학에 불멸의 업적을 남길 수 있었다.

Beagle Channel 을 지나 Magellan Strait 로 들어가서 Magellan 동상이 높게 서 있는 Punta Arenas 항구에 기항하였다. 이 항구는 Panama Channel 이 개통되기전에는 모든 배가 쉬어가는 곳이었기에 지금도 인구가 5만이 넘는 큰 항구이다.

일부 승객들은 Punta Arena 에서 비행기로 Santiago로 떠났지만 대부분은 계속 빙하산으로 둘러싸인 고요하고 아름다운 Chilean Fjord를 4일동안 항해하여 Santiago 에서 100마일 떨어진 Valparais 항구에 도착하였다.

Cruise ship 생활은 생각보다 바빠서 가져간 책도 다 읽지를 못했다. 아침후 2-3시간 흥미있는 lecturer 를 듣고 매일 다른 special lunch, 오후는 dence lesson, art school, tea time then dinner, 그리고 evening live show 로 하루가 빠르게 지나가는 짹짹한 일정의 계속이었다. Los Angeles 와 일기가 비슷한 Santiago 에서 이를 관광, 골프한 후 그리운 고향(?)인 Los Angeles 로 무사히 돌아왔다.

三分의 一

이 영 은(66, 남가주)

지국이 눈을 감고 빠는 그 얼굴,
 멈추어 생각터너 뚫어 보이고,
 웅아린지 콧노랜지 빨아 드리어,
 眞空속 無속을 有乳로 채우네
 뽕오안 피부위로 포근한 熱氣,
 살며시 대인불에 삶이 흐른다.
 쌓인 눈 틈새로 새싹이 움추려도,
 여름지나 가을오면 수확이 무거워도,
 아기가슴 두근소리 젓내음에 머물잖네
 돌이 돌, 셋이 아니, 셋이 뵈으니,
 두 靈이 세 靈 되어 說明은 詭辯이라.
 양팔 벌려 찰싹 붙은 새끼 숨소리,
 못다한 사연처럼 수줍게 스며오네:
 흙에서 생,
 생에서 흙,
 흙에서 다시 생,
 그리고 또 靈과 습치어,
 一分은 금, 은, 보화,
 빛을 보리니:
 찾는 것이 열쇠라 열쇠를 쥐어주고,
 더듬어서 찰싹지 찰싹지를 물려주니,
 갖힌자는 풀려나고 아기는 만족하듯,
 강물은 흐르나 흐르게 되고,
 풀려가고 업혀가니 눈뜨면서 알게되네

<66년 동기 졸업 40주년 기념행사에 낭송>

Green Project Corner

지난 3년여 Fr. Sheldon Cho(92)를 비롯한 Green Project Committee(GPC) 멤버들과 재학생들의 노력으로 MEXIM이란 동아리가 드디어 햇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본과 4학년 이정석군을 비롯 20여명의 재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자생적으로 탄생한 동아리이기에 험사리 불씨가 꺼지질 않을것 같습니다. 음양으로 조연 및 도움을 주신 왕규창 학장님, 특히 지도교수를 맡아 주신 김규환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영자(66) 신입회장님 및 회장단께서 적극 협조를 약속해 주셔서 마음 든든합니다. 건설적이고 풍성한 열매가 맺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서인석(73) GPC Chair

서울의대 동아리 MEXIM 운영안

작성자: 이 정 석(의학과 4학년)



1. 동아리 개요

- (1) 동아리 명칭
MEXIM (More Experience in Medicine)으로 한다. 이하 '동아리'로 칭한다.
- (2) 동아리의 목적
 - a. 이 동아리는 서울대학교의학과재학생들중 해외연수를 통하여 견문을 넓히고 다양한 진로를 모색하고자 하는 학생들(이하 '동아리원'으로 칭함)의 모임이다.
 - b. 동아리원은 해외병원, 국제기구, 연구소 등에서 다양한 연수기회를 갖기 위해 모색한다.
 - c. 동아리원은 연수기회를 보다 밀도있게 활용하기위해 자발적인 의지로 준비한다.
 - d. 동아리원은 자신의 연수경험, 연수에 필요한 정보 등을 재학생들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한다.
 - e. 이 동아리는 서울대학교의학과 미주동창회와 공식적인 연계를 갖는다.
- (3) 동아리의 구성
 - a. 지도교수: 피부과학교실 김규환교수님을 지도교수로 모신다.
 - b. 동아리는 의학과 본과재학생을 대상으로 동아리원을 모집한다.
 - c. 동아리집행부: 본과 4학년에재학중인 동아리원은 집행부에 참여하며, 이중 1인의 회장을 매년 2월에 1학기이상 활동한 동아리원들의 선거로 선출한다.
 - d. 동아리 회장의 의무와 권한
 - 가) 동아리회장은 동아리의 공식적활동을 책임지고 운영하고, 학교, 미주동창회와 의사교환에 힘써야 한다. 나) 동아리회장은 동아리 지원금을 투명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규정에 맞는곳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자세한 지원금 사용규정은 제3장 참조). 다) 선거로 선출된 동아리회장은 1회에 한하여 미주동창회에서 지원하는 해외연수지원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2. 동아리 활동

- (1) 해외연수설명회
 - a. 활동내용: 직전 방학중 또는 지난 6개월간 해외병원, 국제기구 등에서 연수한 재학생들이 연수경험, 준비절차 등에 대해 발표하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행사를 개최한다.
 - b. 일시 및 장소: 매년 3월, 9월 두차례 교내에서 개최한다.
 - c. 의무규정: 가) 동아리구성원이 연수에 다녀온 경우 반드시 발표자로 참여해야한다. 나) 미주동창회의 해외연수지원금을 받았거나, 추후 지원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표자로 참여해야 한다. 다) 동아리집행부는 설명회 내용을 정리하여 웹사이트에 보관한다.
 - d. 향후계획: 해외연수설명회는 이후 졸업생들의 해외진출 경험을 홍보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으며, 2회중 1회를 홈커밍데이(가칭 '미주동창회-MEXIM의 밤' 행사로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 (2) 정기모임
 - a. 활동내용: 동아리원은 자발적으로 정기모임에 참여할 수 있으며, 1회 약 2시간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해외연수에 대한 정보공유,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향상, 해외의료에 대한 이해 등을 도모한다.
 - b. 일시 및 장소: 학기중 격주로 교내에서 개최한다.
 - c. 의무규정: 가) 한학기중 정기모임에 1/2 이상 출석한 동아리원은, 한학기 동안 이 동아리 활동을 한것으로 인정받는다. 나) 동아리집행부는 정기모임내용을 정리하여 웹사이트에 보관한다. 다) 정기모임은 영어로 진행한다.
- (3) 홈페이지 운영
 - a. 활동내용: 동아리의 모든 활동내용과 해외연수관련정보를 모으는 정보보관 수단으로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관리한다. 홈페이지는 집행부중 한명이 맡아 관리하며, 관리자의 승인에 의해 가입할 수 있다.
- (4) 책자발행
 - a. 활동내용: 1년간 동아리의 활동내용, 해외연수관련정보, 수기 등을 모아 책자형태로 만들어 발간한다.
 - b. 일시: 매년 2월, 연 1회 발간한다.

c. 배포: 책자는 미리 주문된 수만큼만 발간한다. 발간에 소요된 인쇄, 제본비용만 받고 판매하며, 미주동창회회원의 경우 책자를 주문하면 무료로 제공한다.

3. 동아리 지원금 사용과 의무

- (1) 지원금 제공
 - a. 지원규모: 미주서울의대동창회가 제공하는 동아리지원금 미화 4,000달러를 연 받는다
 - b. 지원금 지급경로: 서울대학교의과대학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고, 이후 회장에게 전달한다.
- (2) 지원금 사용계획

| 용도 | 예산금액 | 비고 |
|----------------------------|----------|---|
| 동아리신입생모집 | 30만원 | 매년 동아리 홍보 및 회원모집 행사에 사용 |
| 해외연수설명회* | 1- 200만원 | 연 2회 해외연수설명회 비용전체 |
| 홈페이지 관리비용 | 30만원 | 컴퓨터동아리 PAM에 매년 30만원 지급 |
| 홈페이지 제작비용 | 70만원 | 첫 해에 한하여 홈페이지 제작에 비용소요 |
| 정기모임 | 50만원 | 회당 5만원이내, 총액 50만원 이내로 사용 |
| 해외연수책자발행 | 50만원 | 선 주문 후 발행 형태로 하여 인쇄원가로 가격 책정. 단, 미주 동창회로 보낼 분량은 동아리 예산으로 인쇄 |
| 총액: 330만원(첫 해) ~ 360만원(이후) | | |

*해외연수설명회는 2회 중 1회에 한하여 이후 졸업생들의 홈커밍데이 행사(미주동창회-MEXIM의 밤)와 병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을 200만원까지 증액할 수 있다.

(3) 지원금 사용에 따른 의무

- a. 동아리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지원금을 투명하게 관리할 의무를 갖는다.
- b. 지원금은 미리 계획한 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밖의 동아리원들이 동아리의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 c. 지원금을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보관하며, 사용내역은 연 1회 다음해 지원금 수령 이전에 미주동창회에 영수증 사본과 함께 정리한 회계장부 형태로 제출한다.

서울의대 미주동창회 해외연수장학금 (GREEN PROJECT)

- 1. 목적: 이 장학금은 미주 서울의대 동창회에서 출연한 기금과 회원들의 성금으로 마련된 재원을 바탕으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들이 미국 내 대학병원의 정규과정을 이수하거나 임상연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넓은 시야를 기르고 다양한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규모: 총액 미화 1만 달러 규모로, 매년 5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각 2천 달러씩 지원한다. (2) 장학금의 규모는 추후 사업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3. 자격요건
 - (1) 지원자격 (다음 세 가지 조항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 a. 현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으로, 연수 당시에도 재학생이었던 자 단, 지원자가 5명 이하인 경우 타교 의대생의 지원도 허용할 수 있다.
 - b. 매해 지원 마감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외연수를 다녀온 자
 - c. 해외연수는 4주 이상이어야 하며, 미국 의과대학의 정규과정 또는 미국병원의 공식적인 임상연수(Clerkship)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 (2) 제한자격
 - a. 동일 해외연수에 대하여 학교, 재단 등 다른 단체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할 수 없다.
 - b. 이 장학금을 한 번 받았던 자는 다시 지원할 수 없다.
 - c. 이상의 제한자격에 해당하거나 장학생 선정과정에서 제출한 서류 내용에 거짓이 드러날 경우, 장학생 선발을 취소하고 향후 선발에서 제외한다.
- 4. 선발전형
 - (1) 제출서류
 - a. 서울대학교의과대학 미주 동창회 해외연수장학금 지원서식 1부 (첨부파일)
 - b. 재학증명서 1부, 성적표 1부
 - c. 추천서 3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님의 추천서 2부 이상 포함, 단 이 장학금에 지원하기 위해 쓰여진 추천서가 아닌 경우도 인정하나, 추천하신 분의 이름, 소속, 직책, 전화번호, 이메일을 포함한 연락처정보가 있어야 함)
 - d. 에세이 1부 (A4 10매 내외, 10 point, 160%, 구체적인 연수 과정, 연수 후 배운 점 등에 대해 보고서 또는 수필 형식으로 작성함)
 - (2) 선발기준
 - a. 선발은 미주 서울의대 동창회 Green Project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심사한다.
 - b. 충실하게 해외연수과정을 이수하고, 해외연수과정에서 얻은 경험이 자신에게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자: 에세이를 통해 평가함
 - c. 그 밖의 추천서, 학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발함
 - d. 서울의대 동아리 'MEXIM'의 회장은 미주 동창회와 이 동아리의 공식적인 연계구축과 해외연수 기회확대 등의 공로를 인정하여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다.
 - (3) 전형 방법 및 일정
 - a. 제출방법: 2007년 9월 7일까지 하나의 서류봉투에 제출서류를 넣고 자신의 이름, 학번을 기재하여 학생행정실로 제출한다.
 - b. 선발결과 발표: 2007년 10월 중순, 선정된 자에게 개별연락으로 통보함.

5. 장학생의 의무

- (1)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선발 전, 또는 후에 서울의대 동아리 'MEXIM'에서 주관하는 해외연수설명회에서 자신의 경험을 발표하고 노하우를 공유할 의무를 갖는다.
- (2)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원고요청이 있을 경우 서울의대 동창회지 '시계탑', 미주동창회보 등에 기고할 글을 제출해야 한다. (선발과정에서 제출한 에세이를 보강하는 정도로 한다.)
- (3) 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학생 선정을 취소하고 장학금을 반환해야 한다.

2008 Annual Convention

200년도 학술대회가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동문 및 가족들의 많은 참석을 기대합니다.



일시: 2008년 3월 16일(일) - 20일(목)

장소 SUNCOAST HOTEL

9090 Alta Drive, Las Vegas, NV

Room Rate: \$75/Day



Travel Agency: World Agency, Inc.

Empire State Building, Rm# 3116, New York, NY 10118

Tel: (212) 971-971-0022, 800-777-9136 / Officer: Ms. Lydia Jeong

회장 최영자(66)

행사준비위원장 이종현(66)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ALUMNI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172-10 45 Avenue, Flushing, New York 11358

e-mail: snucmaa@yahoo.com

Tel: (718) 888-2622 / Fax: (718) 888-2608